

유배서사로서의 <기우도(奇遇圖)> 연구*

조혜란**

I. 서론	IV. <기우도> 작품 세계의 특징
II. 작가 고증 및 창작 연대 추정	V. <기우도>에 나타난 유배서사의 특징
III. <기우도>의 서사 경계	VI. <기우도>의 소설사적 의미

I. 서론

<기우도>는 기존의 소설 목록에서는 확인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작품으로, 한글 필사본이며, 출판되기 이전의 원고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기우도>라는 제목은 가문소설을 연상하게 하나, 필자가 검토한 결과 이 작품은 오히려 신소설에 가까운 내용 전개를 보여 준다. 현재 남아 있는 <기우도>는 68회에 이르는 회장체 소설로, 원고지 매수 2천 장에 달하는 장편 소설인데, 뒷부분은 누락되어 있어 원래는 더 긴 작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글 행서체로 세로로 썼으며 한 장당 평균 36행, 한 행당 평균 34자이며 총 320매이다. 또한 원고에 저자가 직접 원고를 다듬은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 작품의 소장자는 국어학자인 하정(河亭) 이강료(李江魯) 선생이다. 하정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이 작품은 박세립(朴世霖 1925~1975)이라는 서예가가 자신의

* 이 연구는 200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전임강사 고전문학 전공.

부친이 쓴 글이라면서 하정 선생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한다.

<기우도>는 장천민이라는 양반이 억울하게 옥사를 당하고 유부인을 비롯하여 그 가족들이 신지도에 유배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손자 기연의 덕분에 신원을 하고 흩어졌던 온 가족이 재회하기까지의 과정을 12폭 병풍으로 만든 후 <혜월니사기우도(慧月尼師奇遇圖)>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기우도’라는 제목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서사는 주로 개화, 외국 유학, 부국강병에 대한 모색 등이 주된 관심사이다.

연구 결과 이 작품의 작가는 강화도 출신의 지식인 박헌용(朴憲用)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강화학과와 한문장편소설 작가와의 관련 양상에 대한 기존 논의¹⁾와도 연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작가들은 본격적인 교양물로서의 소설을 다수 창작하였다. 그런데 근대로 들어서면서 이 같은 19세기의 서사 전통과 지식인 작가들의 향방이 모호해진다. 한학에 능한 강화도 태생의 작가가 창작한 장편 거질 <기우도>는 19세기 지식인 작가들의 소설 창작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문학사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의 목표는 일단 이 작품을 학계에 소개하고 작가 및 창작 연대를 고증한 후 작품 세계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전통 서사가 근대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는지 또 이 작품과 강화학과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II. 작가 고증 및 창작 연대 추정

1. 작가 박헌용의 생애

1) 『강도지』 편찬자로서의 박헌용

박세림의 아버지 박헌용(朴憲用: 1881~1940)은 밀양 박씨로, 자는 윤장(允章), 호는 동관(東觀)이며, 강화도 사람이다. 서예가인 박세림에 대한 자료에 비하면 그

1) 장효현, 「19세기 한문 장편소설의 창작 기반과 작가의식」, 『한국고전소설사연구』(고려대 출판부 2002), 366~371쪽

아버지인 박헌용에 관한 자료는 드문데 1932년 박헌용이 편찬한 『續修增補 江都誌』가 남아 있어 우선 이 책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피고자 한다. 신할자본인 『강도지』는 앞서 편찬된 강화도에 관한 지리지의 대부분이 소략하였기 때문에 박헌용이 이들 자료들을 종합하고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보충하여 상하 2권으로 편찬한 책이다. 이 책에 서문을 쓴 이들 중에는 이건방(李建芳, 1861~1939), 정만조(鄭萬朝, 1858~1936) 등의 이름이 보이는데 특히 정만조는 박헌용을 가리켜 ‘나의 벗(余友)’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또 이 책 마지막에는 황박연(黃博淵)이 쓴 <編述人略傳>이 있어 그의 생애를 짐작하게 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8세 때 중국 역사서를 읽고 능히 이치를 깨달았고 아동 때 경전과 사서에 달통했으며 약관의 나이에 옛 시문을 공부했고 남쪽 지방을 다니며 산수 구경을 많이 하며 사람들과 두루 사귀었다. 26세 때 법률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강단에서 교편을 잡기도 하고 혹 사회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세 차례에 걸쳐 요동과 심양으로 다녔고 다섯 번에 걸쳐 평양과 의주를 섭렵했다. 가는 바가 많았으나 뜻에 합하지 않아 끈고하게 돌아왔다. 상사인 경제 이건승이 일찍이 그의 시를 보고 “불평한 마음에 대해 지은 시가 더욱 좋다”고 하였다. 그는 사람됨이 현철하고 분명하였으며 현결찬 것이 장부의 모습이 있었다. 성품이 깨끗하여 세속에 아첨하는 데 구속당하지 않았으며 술을 실컷 마시면 담소를 잘 하였다. …군은 평소 옛것을 매우 좋아하여 무릇 패설 중 참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 비록 한 조각이라도 반드시 철해 두었다. 일찍이 강도시전을 편찬할 때에는 자못 미미하게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뜻이 있어 사람들이 그가 사가의 재주에 뛰어나다고 칭찬하였다.2)

이 기록에 의하면, 박헌용은 전통 학문과 신학문을 두루 갖추었고 교사 생활을 했으며 중국과 이북을 자주 왕래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산수 구경과 사람 사귀기를 좋아했으며 성품이 깨끗하고 풍채도 현결찬 장부였다고 한다. 그리고 옛것을

2) …幼而聰慧 八歲讀漢史 能有所理會 成童通經史 弱冠學古詩文 遂南遊湖嶺間 多見好山水 遍交好人物 年二十六 治法律專門學既卒業 或執鞭於講壇 或援桴於社會 三遊遼瀋 五涉淇灣 所如多不合困而歸 耕齋李上舍建昇 嘗見其詩曰 不平之作 尤善 君爲人頎而皙 軒昂有丈夫像 性骯髒不苟媚於俗 每痛飲善談笑…君素癖於好古 凡稗乘之有可以參考者 雖片隻 必掇拾之 嘗纂江都詩選 頗得顯微闡幽之義 人稱其長於史家才也… 박헌용, <編述人略傳>, 『속주증보 강도지』(1932, 미상).

좋아하였던 그가 패승을 즐겼다고 했는데, 이때 패승이란 설화와 같은 이야기 문학을 지칭하니 그 가운데 고전소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그가 『강도지』 외에 『강도시문』이란 책도 편술했음을 알 수 있다.

2) 개화기 애국지사로서의 박헌용

위 기록에서는 그가 중국과 이복을 여러 번에 걸쳐 왕래했다고만 했는데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말해 주는 자료³⁾가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는 1906년까지 한문학을 수업했는데 그의 어머니 변씨(卞氏) 역시 지적인 소양이 있었던 여성으로 그의 아들 박세림은 어렸을 때 이 할머니에게서 천자와 한글, 『동몽선습』 등을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1907년⁴⁾ 5월 24일에 강화도 사기리(沙磯里)에서 이견승(李建昇: 1858~1924), 권병효(權炳孝), 이선재(李善齊) 등과 함께 계명의숙(啓明義塾)을 설립하고 교사가 되었다.⁵⁾

그리고 1908년부터 1909년까지는 대한학회 및 대한홍학보에 글을 내어 조국의 앞날에 대한 열정을 보인다. 1910년 8월 26일 학부대신 이용식으로부터 고등부 교사 자격증을 받고, 1911년 1월 28일에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했으며 그 후 1913년에 사립 동덕여학교 교사, 1915년에 사립 양심여학교 교사를 하고, 1916년에는 만주로 건너가 이견방, 황기범 등과 독립자금 운반차 인천을 출발하여 안동현에 도착했으나 인천 고등계 형사에게 검거되어 1917년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 7월 출옥 후 다시 검거되어 1922년에 출옥했다고 한다. 그 후에는 집에서

3) 손순옥, 「동정 박세림의 서예술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6), 3-6쪽.

4) 손순옥과 심경호의 논문에서는 계명의숙의 설립 연대를 1906년으로 기술했으나 계명의숙의 창립 연대에 대한 신용하와 윤종영의 글에서는 그 연도가 1907년으로 되어 있다. 손순옥은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심경호는 광무 11년 5월 24일이라고 했는데, 광무라는 연호는 10년(1906년)까지만 있고 그 다음해인 1907년은 융희 1년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1907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신용하의 자료는 강화도 답사에서 직접 구한 것이며 날짜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윤종하의 자료 역시 강화학파에 대한 것으로 정보의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본고에서는 1907년 설을 따랐다. 신용하, 「계명의숙 취지서·창가·경축가·창립기념가·권학가 등」, 『한국학보』(일지사, 1977), 291~292쪽, 심경호, 「19세기 말 20세기 초 강화학파의 지적 고뇌와 문학」, 『어문논집』 41호(민족어문학회, 2000), 16쪽, 윤종영, 「문명건문기 강화학파의 발자취를 찾아서 상」, 『문명연지』, 5권 1호(2004), 232쪽.

5) 『(속수증보) 강도지』 중 사립학교 편에 계명의숙에 대한 항목이 있으나 그가 이곳의 선생님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언급은 없었다.

망국의 한을 품고 시문 활동을 하면서 1926년에는 『강도고금시선』을 편술하고, 1932년 2월에는 『강도지』 상하권을 편술했다 그 후 1940년에 병으로 인해 세상을 마치게 되는데 이때 백범 김구 선생이 애도하면서 그의 아들 박세림에게 회호를 써 주었다)고 한다.

손순옥의 논문⁷⁾에 의하면, 박헌용은 이진승, 이진방 등의 인물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그가 강화학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며, 또 중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돕다가 감옥에 갔다는 서술은 그가 항일운동에 어느 정도 가담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편술인약전>에 모호하게 기록된 중국과 이북 방문 언급은 어쩌면 이러한 사건에 대한 우의적 표현일 수 있겠다. 『강도지』의 표현이 이렇게 모호한 것은 그 책의 출판 연대가 1932년이었기 때문에 편술자의 항일운동이나 이와 관련한 투옥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1908년, 1909년에 쓴 글에서도 조국의 앞날에 대한 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1908년 11월 25일자 대한학회(大韓學會) 월보 제9호에 투고한 <기대한학회(大韓學會)>라는 글에서 그는 국가 사랑과 동족 교육과 관련해서 종교의 효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 1909년 3월 20일 『대한흥학보(大韓興學報)』 제1호에 투고한 「사회진보재어종교지확립(社會進步在於宗教之確立)」이라는 글에서도 그는 ‘국가의 응결력과 주합력(注合力)이 종교에서 나온다 면서 국가가 흥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① 종교는 무엇인가. 도덕심을 배양하고 평화력을 높여서 작게 말하면 인심을 인도하고 크게 말하면 국력을 증진하니 이를 지키면 이루고 잃으면 패하며, 믿으면 안전하고 등 돌리면 위태로워지고 의지하면 살고 버리면 멸망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⁸⁾

6) 손순옥, 앞의 논문 6쪽 박헌용의 삶에 대한 손순옥의 서술은 그 행적에 대해 각주 처리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아들 박세림의 증언 및 박세림의 수제자들의 증언에 의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정확하고 상세하므로 신빙성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7) 위의 논문, 3쪽, 5쪽.

8) 宗教란 者는 何요 道德心을 培養호고 平和力을 敲盪호야 小而言之면 人心을 輔導호고 大而言之면 國力을 增進호나니 此를 守之則成호고 失之則敗호며 賴之則安호고 背之則危호며 依之則生호고 棄

② 우리나라에 종교가 서지 않았음은 알 만한 이들이 개탄하는 바이다. 기자 조선 이래로 허명은 유교를 숭상한다 하나 경전의 뜻이 심오하다 하여 중등 이하의 우매한 자제들은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매우 적고 중등 이상의 총명한 자제들은 행하는 자가 조금 있고…유교를 헛된 문장만 숭상해서 실지로 이행하지 못한 까닭인 것이지 유교가 원래 열등해서는 아니다.…유교를 허문만 숭상하여 실지로 이행하지 못하는 까닭이고 유교가 원래 열등해서는 아니다.…그렇지 않으면 안식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수의 구원의 피로 죄악을 씻고 하늘을 공경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마음을 다하여 자유의 권리를 찾고 영생의 진리를 강구할 것이다.9)

그가 매체에 투고한 것은 이 두 편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두 편 모두 종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박헌용은 국력 증진에 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한학의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이때 종교란 유교만이 아니라 기독교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흥미롭다. 또 그는 대한홍학보에 일정 금액을 기부했는데, 1909년 3월 20일 대한홍학보 제1호의 <제일회 회계부 광고>를 보면 ‘朴憲用 一元五十錢’이라는 기록이 있다. 1906년에 그가 기독교계나 친일 세력이 아닌 강화학과의 이건승이 세운 계명의숙의 선생님이 었다는 것과, 그 몇 년 뒤 언론에 적극적으로 투고하고 기부금을 냈다는 사실은 애국계몽기 지식인으로서의 그의 면모를 짐작하게 한다.

2. 작품 창작 연대 추정

<기우도>의 작가에 대한 고증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 작품의 창작 연대에 대해 추정해 보기로 한다. 작가 고증에서 소설 창작에 대한 기록은

之則滅熄은 古今同轍이오 東西如鑒이라,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http://nhcc.go.kr>) 1909년 4월 20일자 『대한홍학보』, 2호, 7면, 박헌용, 「사회진보제어종교지확립」 중

- 9) 我邦에 宗教가 未立함은 知者의 慨嘆하는 바 이라. 與自箕韓以來로 虛名은 儒教를 尙한다 하나 經傳의 文義가 深奧하다 하여 中等 以下 愚賤한 子弟는 行한 者 甚尠하고 中等 以上 聰俊한 子弟는 行한 者 稍有하다. 儒教를 虛文만 尙하여 實地로 履行치 못함 所以로 儒教 範圍가 元來 劣等함은 아니로다. 不然이면 安息日마다 禮拜堂에 往하여 耶蘇의 救血로 罪惡을 快洗하고 敬天斥魔의 心力을 盡하여 自由의 權을 覓하고 永生의 眞理를 講究할 지로다.; 위의 글, 8-9쪽.

찾을 수 없었으므로 우선 창작 시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지표들을 작품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 작품은 공간 배경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데 비해 시간 배경에 대해서는 ‘구한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시간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표지들로는 임오군란, 대원군의 친진행, 우정국 낙성식 사건, 동학혁명 등이 있는데 이 중 동학혁명은 1894년에 일어났던 것으로 여러 사건 중 시기적으로 가장 후대에 속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서술자의 서술문을 보면 이보다 더 후대의 지표가 될 만한 정보들이 있다.

그것은 화폐 단위에 대한 언급인데, 장천민이 사기를 당하는 장면에서 ‘당시에는 량(兩)을 썼으나 지금은 환(圓)을 쓴다¹⁰⁾는 서술자 개입이 그것이다. 조선은 1901년 2월 화폐 개혁을 하는데, 그때 새로이 ‘환’이라는 단위를 정하였다.¹¹⁾ 그리하여 이때부터 고유한 화폐단위였던 ‘냥’과 1894년부터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사용하게 된 ‘원(元)’과 더불어 ‘환’이라는 새로운 화폐단위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당시 1환은 5냥의 가치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작품에 보면 ‘5,000 냥이 100 환에 해당한다¹²⁾는 언급도 있어 량의 가치가 훨씬 떨어진 것으로 나온다. 환에 비해 량의 가치가 현격하게 절하된 것은 1905년에 실시된 ‘광무 9년의 화폐개혁’에 의해서이다. 이 개혁에서 우리나라의 화폐는 2분의 1로 가치가 절하되었고, 우리나라 사람의 화폐적 자산은 3분의 1로 감축당하는 금융 공황 현상이 일어났다¹³⁾고 한다. 작품 상에서는 1환이 50냥에 해당하는 셈이어서 ‘1 환 10 냥’이라는 1905년의 화폐 환산과는 차이가 있으나, 환에 대비하여 냥의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서술의 시점은 1901년 상황보다는 1905년 이후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창작 시기를 추정한다면 작품 창작의 상한선은 190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작가 박헌용의 생애를 보면 1922년까지는 대사 회적인 활동을 주로 했고, 시문을 편집해 내고 강화도 지리지를 편찬하는 등의 저

10) <기우도>, 5면

11) 한국조폐공사(편), 『한국화폐전사』(비매품, 1971), 182쪽

12) <기우도>, 77면

13) 한국조폐공사(편), 앞의 책, 214~218쪽

술 활동은 그의 말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지 2,000 매를 넘기는 장편인 <기우도>의 창작도 그 말년의 저술 시기에 지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일본에 대한 태도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작가는 개화와 신학문의 수용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일본은 바로 개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등장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에서의 일본 혹은 일본인이 이인직의 신소설처럼 적극적인 구원자로 그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의 항일 행적과 투옥 등을 생각해 보면 창작 시기가 오히려 1910년 이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강도지』에 서문을 썼던 정만조의 경우를 보면 이 같은 요소가 창작 연대를 추정하기 위해 절대적인 조건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리라는 생각이 든다. 서문에서 박헌용을 ‘내 친구[余友]’라고 불렀던 정만조는 문장에 능한 조선의 관리였다가 1910년 이후에는 친일적인 성격을 띤 인물¹⁴⁾이다. 그런데도 박헌용이 그에게 ‘내 친구’라는 호칭을 허락하면서 자신이 편찬한 책 서문을 쓰도록 한 것이 1932년으로, 이때는 이미 그가 출옥한 후인 것이다. 게다가 문학의 매개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작가의 항일투쟁 경험이 곧바로 작품 속에 반영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작품 창작 시기의 상한선은 1905년 이후로, 하한선은 그가 시문 활동을 열심히 했던 1920년 대 이후로 잡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III. <기우도>의 서사 경계

이 논문은 <기우도>에 대한 첫 번째 연구이므로 작품의 전모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기우도>는 분량상 원고지 2,000 매가 넘는 장편 거질이어서 서사 단락으로 제시하면 단락이 너무 길어져 오히려 서사 전개를 파악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전체 작품 경계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작품 줄거리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 작품은 장편이기는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인물대사전』(중앙일보사, 1999), 1989 쪽

하나 전체 서사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부는 1회에서 35회까지로, 이 부분은 신지도로 유배를 가게 되어 몰락한 장천민의 가문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며 이 부분만으로도 한 편의 이야기로서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반부의 서사 공간은 신지도가 중심이며, 필요에 따라 서울, 안성, 공주, 일본 등이 등장한다. 뒷부분이 결여된 후반부는 36회에서 68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주로 개화, 유학, 부국강병 정치개혁 등의 문제가 주된 내용이며 공간 역시 조선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 역시 작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작품의 서사를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1화~35화>

강진 신지도 망양포 배 위에 있던 여승 정복과 남동생 정만이 밤중에 물에 빠지려던 한 여성을 구해 주고 충청도 공주 유구암으로 데려가는데, 정복은 풍랑에 남편을 잃고 그 몇 년 후 아들 경남수와 자신이 탄 배가 침몰해 아들과 헤어진 후 중이 되었던 여성으로, 그 전날 몽조가 있어 자살하려는 그 여성을 구하게 된 것이다. 자살하려던 여성은 장천민(張天民)의 부인이었다. 그들은 한 10년 전 그들은 경성 남장동(南壯洞)에서 유복하게 살았는데 세속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애초부터 과거도 안 보고 지내던 남편 장천민이 선영이 있고 부친이 군수로 있었던 안성으로 이사 가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최선달이라는 작자에게 사기를 당하는데, 안성군수는 오징어 떡과 치뇌주(雉腦酒)에 대한 지식으로 이 사건을 해결한다.

그 후 박군수가 양주목사로 가고 새로 부임한 군수는 방효성의 아들 방대준을 새 형리로 삼는데,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하던 방대준이 염종선을 시켜 장천민 집에서 그가 수초(手抄)한 책인 <천추정안(千秋正眼)>과 <당우이자(黨友易知)>를 훔쳐서 동헌으로 가져갔다. 남인인 장천민이 당색 표시를 해 두었는데 소론이었던 군수는 장천민의 당색 표시에 불만을 품고서 경기안핵사와 공모하여 장계를 써서 장천민을 경성으로 잡혀가게 하니, 식구들도 다 따라서 경성으로 갔는데, 장천민은 옥에 갇힌 지 한 달만에 죽고 그 한 달 후 유복자 석영(錫英)이 태어났으며, 그 한 달 후 장천민의 처 유씨 일행은 전라도 강진군 신지도로 유배가게 된 것이었다.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데 상처한 최치삼(崔致三)이라는 자가

유씨 부인에게 눈독을 들이니, 부인이 투신했다가 정복에게 발견된 것이다. 자초 지중을 알게 된 춘매는 자기가 최치삼 집 일을 해 주고 석희, 석영 남매를 먹여 살리려고 결심한 후 관가에는 모르게 하고 석희, 석영 남매는 춘매와 함께 최치삼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훗날 춘매는 최치삼과의 관계에서 딸 복랑(9살), 아들 복남(5살)을 낳게 된다. 딸 석희 역시 겁탈 위기에서 바다에 투신하는데, 마침 제주 조천포에 사는 정희도의 장사 배가 강진에 들렀다가 석희를 구출한다. 정희도 역시 석희 아버지의 현몽을 통해 석희를 구하게 된 것이다. 유부인은 혜월이라는 법명으로 중 생활한 지 10여 년 지났는데 그 와중에서도 박군수와 연락 닿을 길을 모색하던 중 절에 찾아온 공주 목사를 통해 박군수가 현재 경상도 동래부윤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0월 기망에 혜월이 부산 동래 내성여관 홍씨 과부며느리가 바느질로 관아 출입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여관에서 하루 묵으며 동래부윤을 만날 방도를 강구하는데 마침 과부며느리의 의동생이 관가에 청지기 및 통역으로 일을 하고 있어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가 바로 정복의 아들인 경남수로, 큰 객주를 하는 그 여자의 친정 아버지가 일본에 갔다가 경남수를 양아들로 삼아 데려왔던 것이다. 그 달 하순경 유구암에서 모자가 상봉하였는데, 경남수는 물에 빠진 후 일본 록아도에 사는 상인 남무길에 의해 구조된 후 그 딸 희주와 결혼했고, 강상현으로 이사하여 장사를 하며 지냈다.

11살이 된 석영은 취당 김창제 선생 집에 고용 노릇을 해 주기로 하고 그곳에서 글 공부를 하게 되니, 춘매는 정성으로 지원하고, 8년 후 19살 된 석영은 학문이 괄목성장하게 되었다. 취당선생은 귀양 왔던 할아버지 이후 이곳에서 정착하게 된 집안인데 석영에게 그간의 보수라고 하면서 돈 이천 냥을 주어 사업 밑천으로 삼게 했다. 석영은 목축업, 과수 재배 등을 시작하고 개간한 지 1년 후 황무지가 좋은 땅으로 바뀌니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았다. 이웃 강진 아전 출신 조상운에게는 18살에 과부가 되어 친정에 돌아온 옥순이라는 딸이 하나 있는데 석영을 좋아하여 연애할 기회를 엿보았다.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자 취당선생이 석영을 불러 여색을 경계하라고 충고하니 내심 석영을 18세의 지적인 딸 동순(東順)의 사윗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취당이 석영에게 혼인 말을 꺼내고 비밀리에 혼인식 치렀다. 석영이 장가든 지 3일 후쯤 일본에 갔던 경남수가 다시 유구암을 찾아오고, 정복은 남수에게 강진에 가서 혜월의 자식들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니,

10월 하순경 남수는 석영을 찾아가 13년 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두 사람이 의형제를 맺었고, 그 후 남수는 외가 소식을 알기 위해 고금도로 떠났다. 석영은 28살이 되었을 석희 생각을 하는데, 이때 석희는 시집간 지 8년째 되어 자식 셋을 둔 상태였다. 석희가 시집가게 되자 그 재산이 탐난 계모와 간부는 석희의 정절을 모해하여 시집에서 쫓겨나게 만들고자 하나 사실이 밝혀져 석희의 결백이 증명된다.

알리지도 않고 혼인한 석영으로 인해 옥순 역시 복수를 계획하고 석영 아내의 정절을 모해하려는 속임수를 공모하는데 옥순은 오히려 석영 아내의 재치로 망신만 당하고 동네를 떠난다. 취당 집에 선물로 큰 자라가 생겼는데 동순은 꿈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청의동자를 보고 그 자라를 놓아주고자 하여 대신 큰 생선을 한 마리 구해 놓고 아버지에게 알리고 자라를 놓아주었는데, 그 날 밤 동순의 꿈에 청의동자가 다시 나타나 고맙다고 하며 아들로 태어나겠다고 한다. 석영은 아버지의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기린이를 낳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과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기연(驥淵)이라 하였다. 한편 최치삼은 춘매가 천한 신분 출신이라고 구박을 하니 춘매가 장석영에게 하소연을 하고, 마침 정복의 남동생이 들르자 자신도 같이 유구암으로 떠난다. 춘매가 고마운 해월은 주 노의 관계가 아닌 형제지의를 맺고, 춘매는 정복의 동생 정만과 유구암 아래에서 같이 살게 된다. 하루는 제주도에 조정의 패초장이 도착해서 오교리의 귀양을 풀고 동부승지를 제수하니 4일 후 서울에 도착한다.

재산을 모은 장석영은 섬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흥학계(興學契)와 권업계(勸業契)를 조직하여 교육과 산업 발전에 힘쓰도록 하자고 권면하여 서당과 작업장을 마련해 섬 발전에 이바지한다. 기연이 14세 되자 장석영도 해결 못 하는 산송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총명함을 보이고 이에 감탄한 석영은 기연이 15세가 되자 서울로 가서 장동 김부원군을 만나 자기 집안의 억울한 사정¹⁵⁾을 신원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면서, 가는 길에 유구암에 들르라고 한다. 기연이 유구암에서 할머니인 해월을 만나고 금봉 모인 춘매와도 상봉했으며, 인맥을 연결하여 장동 사는 정승 김부원군에게 부탁하니, 임금이 죄안을 탕척(蕩赦)한 후 장천민을 은일참봉(隱逸參奉)에 추증하고 적몰했던 토지와 가옥 및 기타 재산을 환급하라는 전교를 내린다.

15) 이는 평소 장천민을 싫어했던 안성군수 이씨가 장천민을 억울하게 당파 관련으로 몰아서 옥사시키고 가족을 신지도에 유배시킨 일을 가리킨다.

기연이 금동 편에 자기 부친 및 할머니께 이 소식을 편지로 전하라고 하니 금동이 혜월에게 소식을 전해 기쁜 소식을 알린다.

영변부사로 나가게 된 전날 오교리가 인사차 김부원군을 찾아오니, 김정승이 그에게 아들의 공부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 며칠 후 오영변의 종제인 오봉사(吳奉事)가 와서 조카의 글 동접을 찾으러 왔는데 기연의 이야기를 듣다가 고모 일이 종형수와 같다고 생각하여 결국 기연과 석희가 만나게 된다. 석희는 기연을 앞세우고 유구암으로 찾아가고 석영은 기연의 편지를 받은 후 재산을 정리하고 유구암으로 오게 되니 흠어졌던 온 가족이 비로소 재회한다. 정복은 가진 돈으로 건물을 늘려 짓고 그 건물 이름을 산사기우(山寺奇遇)라 했으며, 홍참봉이 화사를 소개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또 경성으로 가서 각 방의 현판 글씨를 지인들에게 받아왔다. 유부인은 다시 정복 만나 새로 지은 집을 구경했으며, 신지도로 유배가는 광경부터 해배하여 온 가족이 다 만나는 과정을 순서대로 재현한 12폭 병풍 <慧月尼師一室奇遇圖> 을 만들었다

<36회~68회>

석영이 남수에게 금제역에 와서 같이 살면서 객주업과 부업을 하자고 권하고, 남수는 조선은 신식 교육을 배우고 무(武)를 강화하지 않으면 장차 멸망할 것이고, 조선 정치 개혁의 필요성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게 재촉당할 것이라고 피력하니, 이에 석영은 조정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뇌를 개량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모두 금제역에 모여 살게 되었고, 석영은 오영변 집에서 공부하는 기연을 데리고 와서 남수에게서 신학문과 일본어를 배우도록 했으며 금봉 또한 남수에게서 신학문을 배웠다. 석영이 아들 기연을 중국에 유학시키고자 하여 아들 의견을 물어 신교관과 한 집안이고 17세인 신태경과 정혼을 시킨다. 그 후 기연은 북경대학교에 입학했으며 금봉 역시 석영을 따라 북경으로 간다. 한편 장석영과 경남수는 육영의숙과 권업모범장을 세우자는 발의를 하고, 금봉 모는 여기에 후원자가 되었다. 동학은 진압했는데 무뢰배들이 동학도를 지칭하며 궁을부라는 부적을 써 가지고 다니고, 강진 고금도에 유배갔던 전 안성군수 이씨가 동학으로 한 몫 잡고자 하여 정감록도 쓰고 축지법, 둔갑법, 미래예언, 천문지리 등의 재주를 과시하면서 자호를 청호(靑虎)라 하고 청낭원이라는 세력을 규합하였다. 그

러니 조정에서 오영변을 삼남안핵사 겸 삼남초토사로 파견하였고, 오영변은 청남 원을 심문하여 청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를 체포하여 효수시킨다. 한편 김취당의 아들 동석이 서울로 가서 누이(석영의 부인)와 만나고 양주 수락산 송산촌에서 살기로 결정한 후 석영과 함께 신지도로 와서 취당을 모셔 간다.

석영의 부인 동순은 첩 두기를 원치 않는 석영에게 시어머니가 좋은 태몽을 꾸셨으니 나중에 들어와서 말없이 자라고 하면서 자기 대신 홍소사와 동침하게 한다. 다음 날 사실을 알게 된 석영은 대경하고 원하지는 않았으나 첩을 두게 되었다. 그러던 중 장동 김판서는 석영에게 편지를 보내 인제현감을 하게 해 주었고, 석영은 부임하자마자 10년 동안 해결 안 되었던 치정에 얽힌 살인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형수 딸의 원한을 산다. 한편 경남수는 신교관과 친해지니 경성 갈 때 희주와 동행하였는데, 마침 같이 있던 태경에게도 희주는 비록 여자지만 배울 것이 많으면서 소개시켜 주었다. 신교관이 여성도 교육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기연이 신학문까지 겸비하게 되면 너같이 구식 여자가 처인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면서 태경이 유학가고 싶다는 것을 허락하니, 태경은 신교관과 희주의 도움으로 부모, 시부모 모르게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장기연은 북경 예비과에 입학한 후 손보상의 집에 묵게 되었다. 그런데 건넌편 여사 진상호의 첩 동금선이 기연을 사모하고, 장문겸을 동금선을 사모하는 과정에서 살인미수 사건에 얽히게 되지만 결국 그 결백이 밝혀진다. 천안 유부인은 병이 깊이 들었는데 석영이 밤마다 목욕재계하기를 50여 일 하다가 하루는 희한한 꿈을 꾸었다. 즉 한 동자에게 이끌려 첩첩산중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전생에 옥초(沃焦) 이처사였고 영원암 화룡도사에게 도술을 배우고 초막에서 선도(仙道)를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명부전에 이르니 상체가 그의 효성에 감동했다며 유부인의 목숨을 10년 연장시켜주고 병 고쳐 주겠다고 하면서 석영 역시 자기 부인을 죽게 한 전생 업으로 이생에서 30년 간 고초 당하는 것이며 부인 원업으로 한 번의 고초를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꿈 깨어 유부인에게 가 보니, 유부인이 간 밤에 꿈을 꾸었는데 어떤 노인이 감로수를 주기에 받아먹고는 병이 나아 있었다.

영주 18세에 기연 24 세인데 약혼녀가 있다고 해도 영주는 기연의 첩이라도 좋다고 하면서 아니면 죽겠다고 하고, 결국 기연은 영주의 뜻을 받아들인다 26 세

되던 해 그는 북경대 문과를 졸업하고 당대 중국 문사들과 교류하며 인맥을 쌓고 이름이 중국 조정에 알려져 예문박사에 서임되었으며, 그해 가을 천진 부두에서 인천을 향해 출발하여 경성에 도착한 후 신교관을 방문하였다. 신교관이 기연에게 태경을 유학 보냈으나 그 이후 소식이 끊겼으며 태경의 모친은 딸이 기연에게 가 있는 줄로만 알고 있다고 하고, 기연의 부모에게도 거짓말했다고 알려 주었다. 기연은 영주와 손보상을 일단 머물러 두고 천안으로 출발하여 어머니와 재회하고 금봉 모에게 금봉은 내년 졸업한다는 소식을 전해 주고, 희주를 만나 태경의 여비 등을 도와준 데 감사를 표하며 현재 행방을 물으니 희주도 모른다고 하면서 어떤 여자와 동경으로 갔는데 공부할 결심만은 매우 굳다고 했다. 이는 태경이 부모에 의해 조선으로 잡혀갈까 두려워 거짓말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고 태경은 강산 청신여학교 고등과에 입학하여 잘 다니고 있었다. 일본에서 태경은 유학 왔다 한량으로 지내는 전라도 광주 사람 정학모의 속셈도 모르고 같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왕래하며 지내고 있었다.

장석영이 고성군수가 되어 인제로 간 후 천안집에는 경남수의 추천에 의해 안철성 부부가 고용되었는데 안철수는 40세로 용력이 뛰어나고 순덕이라는 딸이 있었다. 이웃에 도착때가 동학당이라고 표방하며 침입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집에 불내고 부녀자를 욕 보였는데, 다만 석영네 집은 칠성이 5명을 제압하여 천안 읍에 신고하니 별 탈 없었고, 그 5명을 심문하여 도둑들의 근거지인 공주 차령을 급습했는데 그 중에는 서소사(금봉 모)의 아들인 최복남도 들어 있었다. 복남은 재물을 함부로 쓰는 천하의 난봉꾼인데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은 생각 않고 어머니인 서소사가 금봉에게는 잘 대해 주고 자신은 박대한다면서 동학도에 투신한 것이었다. 강도죄인은 중형에 해당하는데 유부인은 그래도 신지도에서 살아남은 것은 복남 모 덕분이라면서 기연을 통해 서울 세도가에 손을 써서 복남을 데리고 왔다.

10월 하순 안성집이 장석영의 둘째 아들 봉연을 순산하였다. 한편 삼일포 부근에 갔던 장석영은 진사 고기황을 만난다. 고기황은 삼척으로 이거한 지 35년 되었고 청사선생이라고도 했는데 나이 40세에 우연히 도가서를 공부하고 양생수련했는데 장석영을 옥초거사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전생에서 그의 도술 공부 스승이었다고 했다.

기연이 경남수와 의논하여 태경의 유학 사실과 경성의 영주 건을 부모에게 알

린다. 후에 석영이 안성집과 봉연을 데리고 고성으로 출발하여 대관령에서 쉬는데 어떤 여자 울음소리가 났다. 남편 잃고 자살하려던 차라고 하니 불쌍히 여겨 고성으로 데려가는데 실은 유흥기의 딸로 장석영의 판결로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한 연극이었다. 석영의 꿈에 최금량이 나타나 위협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니 석영이 그 문제를 무난히 해결할 수 있었다. 한편 학모는 지속적으로 태경에게 접근하면서 이는 일본인 여성(송희)과 공모하여 태경을 겁탈하려 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강경옥은 태경을 의심하며 뒤를 밟았다가 태경의 노기 어린 목소리 및 칼날에 저항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을 불러오게 한 후 자신이 급히 들어가 태경을 구했다. 이 와중에 태경은 칼에 찔려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에서 학모, 경옥, 송희 등을 심문하여 진상을 밝혀냈다. 그 후 강산일보에 신태경 사건이 실리니 태경을 위문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정학모는 강간미수 겸 상해죄로 3년간 복역하게 된다. 그런데 명치대학 정치과를 졸업하고 조선 정치객과의 일로 인해 일본에 남아 있었던 오태현(오교리의 아들)이 마침 일본에 있다가 태경이 기연의 약혼녀임을 알고 찾아가 위문한다.

장석영은 과만이 되어 식구를 데리고 삼척 용화촌의 청사선생을 찾아가는데, 석영의 관상으로 보아 근간에 액운이 있을 것 같으니 자신과 팔경이나 보고 가라는 청사의 말에 식구는 청사의 친구 집에 맡겨두고 금강산 구경을 하게 된다. 금강산 구경을 하다가 석영의 전생을 이는 벽파선생이라는 자를 만나서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대망이 옥초(석영)를 공격하려 하여 청사가 신장을 불러 죽였는데 이는 바로 유흥기의 후인이었고 또 길을 가던 중 이번에는 늙은 범이 달려드는데 청사 눈에는 여귀(女鬼)로 보여 신장을 불러 잡고 보니 옥초가 죽었던 전생 부인이었다. 도솔암에 가서 주지승에게서 옥초 부인의 무덤 자리를 알게 되니, 옥초는 제문을 짓고 봉분을 하여 원혼을 달래주었다.

그 후 석영은 서울로 향하고, 조정에서는 석영에게 당하정삼품통훈대부로 관직은 통례원 좌통례 겸 봉상시정을 내리니, 석영은 경성 혜화문 밖 돈암현 근처에 집을 구하고 천안의 식구들을 불러올렸다. 경남수와 서숙주(금봉 母) 일가도 경성으로 이사 왔는데, 오재철이 세도기를 탄핵하다가 그 일가가 함경도 경흥 땅으로 전가사변(全家徙邊)에 처해져 소식을 모르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다. 어느 날 석영과 신교관, 오참봉이 만나 갑신정변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다시 우정국

개척식 같은 기회가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안타까워하며, 용력 있는 의협아를 모을 필요에 대해 동의하였다. 또 장기연은 중국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으나 시국이 이러하니 벼슬을 할 생각도 없고 뜻있는 사람들은 많이들 중국으로 망명했으니 동지를 규합하기도 어려웠다. 하루는 기연의 동지 세 사람이 왔는데 서로 꿈 이야기를 한 후 세 사람은 일본 시찰할 일을 말하고 기연은 중국 유람할 일을 말한 후에 헤어졌다. 결국 기연은 안철성을 데리고 인천항에서 중국 상선 천진환(天津丸)을 탔는데, 이 여행은 정치적인 운동에 목적을 두고 중국 18성을 다 돌 계획으로 떠나는 것이었다.

IV. <기우도> 작품 세계의 특징

1. 전통적 서사와 근대적 요소와의 조우

<기우도>의 전반부는 유배지인 신지도를 중심으로 하여 몰락한 주인공 일가의 회복이 서사의 중심 내용인 반면 후반부는 중국, 일본 등으로 공간을 확대하면서 개화, 신교육, 부국강병 등에 대한 관심이 서사의 중심 내용이 된다 즉 이 작품에는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서사와 신소설의 전형적인 서사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은 양자를 다 포괄하고 있는 반면 형식은 흔히 신작 구소설 혹은 신소설의 형식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¹⁶⁾ <기우도> 역시 마치 희곡처럼 서술과 대화가 분리되어 있고 괄호 안에 등장인물의 이름이 주어져 있으며 대사가 끝나면 행을 바꾸고 있다. 또 이 작품은 고전소설에 비해 공간이나 사건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사실적인 정보들로 구성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보인다고 해도 이 작품은 고전소설의 서사 전통에 많이 기대어 있다. 신소설이 고전소설을 계승했다는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신소설 역시 영웅 일대기 구조를 따르는 작품들이 많다는 논의¹⁷⁾일 것이다. 그러나 <기우도>

16) 신작 구소설 혹은 신소설의 형식적인 특징의 하나로 흔히 서술자와 화자가 분리되어 있고, 행을 바꾸어 준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기우도>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쓰여 있다. 이은숙, 『신작 구소설 연구』(국학자료원, 2000), 57쪽, 92쪽

의 경우 영웅 일대기 구조대로 서사가 전개되는 것은 작품의 전반부에만 해당하며, 또 그 구조는 전반부에서 서사적으로 완결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구조보다는 사건이나 화소 등의 차원에서 이 작품이 고전소설의 전통적 서사 관습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동시에 변화를 추구했는가 하는 점이다.

1) 전통적 서사 요소의 지속적인 차용

<기우도>는 시대 상황에 맞는 서사를 지향하고 있으나 작품 속에 꾸준히 등장하며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면서 읽는 재미를 강화하는 요소는 고전소설의 서사 전통에 기대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전통적 서사 요소로는 현몽, 정절 모해, 송사 모티프와, 전생담, 몽유록 등으로, 이 같은 요소들은 고전소설의 서사 관습에서 대표적으로 구사하던 것들이다.

이 중 현몽 모티프는 작품 초반부터 후반부까지 꾸준히 등장하는데, 바다에 투신한 장천민의 부인 유씨를 유구암 여승 정복이 구하고, 제주 상인 정희도가 바다에 투신한 석희를 구하게 된 것은 모두 장천민의 혼령이 그들의 꿈에 나타나 미리 고지했기 때문이며, 장석영의 부인 동순이 죽게 된 자리를 구해 주자 그 날 밤 꿈에 청의동자가 나타나 태몽임을 알리고, 후에 고성군수로 간 장석영이 음모에 의해 죽게 되자 장석영의 판결에 의해 억울함을 해소한 최금량이 꿈에 나타나 위험을 피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태몽을 제외한다면 현몽 모티프는 주인공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해결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인물에 대한 정절 모해 역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모티프인데, 유부인과 장석희는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바다에 투신해야 한 경우이고, 석희의 계모인 김씨부인은 석희의 재산을 탐내서 석희 남편이 석희의 정절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짓 편지를 쓰고, 동순의 경우 역시 석영을 사모했던 옥순에 의해 정절 모해를 당한다. 신여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본에 유학까지 간 신태경 역시 불한당에 의해 겁탈 당할 위기에 놓였다. 정절 모해는 주로 긍정적인 여성 인물이 당하는 사건인데, 구여성이든 신여성이든 간에 유부인, 석희, 동순, 태경은 모두

17) 신소설이 고전소설을 계승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논의로는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한국문화연구소, 1973) 참고

장씨 집안에 시집은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송사 역시 작품 초반부터 등장하면서 서사에 긴장감을 더하는 모티프로 작품 후반부에도 등장한다. 장천민이 당한 사기 사건, 정희도의 살인 사건, 유흥기의 살인 사건 등은 처벌이 제대로 내려진 경우이다. 장천민이 옥에 갇혀 죽게 되는 것 역시 송사에 해당하는데 그러나 이 경우는 책임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데서 비롯한 것으로, 그 설명이 작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된다.

현몽이나 정절 모해 혹은 송사 모티프가 신소설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모티프였던 반면에 전생담이나 몽유록은 조금 더 고전소설의 서사 전통에 가까운 요소들이다. 이 중 몽유록 같은 요소는 67회에 기연이 뜻있는 세 명의 인사들과 비분강개한 대화를 나누는 대목에서 등장한다. 그 중 한 사람이 자신이 꾸 꿈이 희한하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당시 영의정,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 벼슬아치 등이 흥측한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도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 온갖 흥측한 모양의 귀신들이 싸움을 하는 와중에 키가 9척 되는 한 신장이 나타나 악귀들을 소멸하는 상쾌한 꿈이었고, 세 번째 사람의 꿈은 어느 모르는 곳에 새때만 가득한데 그 가운데 가마 한 채가 서고 그 재상 역시 새때를 구경하는데 보니 한재(寒齋) 박합장(朴闊丈)이어서 그에게 상황을 물으니 이것은 새나라 혁명운동으로 독수리와 같은 새가 주동이 되어 혁파할 대상들을 쫓아내고 개혁당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들었다는 것이다. 67회는 거의 이 세 명의 꿈 이야기로 채워질 정도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정치 우화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전달되는 이 꿈 이야기는 신채호의 <꿈하늘>을 연상시키는 바가 있어 개혁을 꿈꾸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묘사하는데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하겠다.

전생담의 경우는 장석영에게 해당하는 요소인데, 작품 후반부에 유부인의 득병을 계기로 등장하게 된다. 그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자 기도하는 중 자신이 전생에 옥초도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전생에서의 업에 대해 듣게 된다. 그 후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만난 청사선생과의 교류에서 그의 전생담이 등장하는데 유람 공간 및 사건 묘사가 자세한 데 비해 작품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하는가는 미지수이다. 이미 후반부에서 장석영은 개화를 지향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상당한 분량에 걸쳐 그 인물의 전생담이 삽입되면서 서사의 방향에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2) 시대에 부응하는 요소들의 적극적인 수용

이 작품이 근대와 조우하는 요소들은 신문물, 교육, 부국강병, 여성 교육, 재산 증식 및 치정과 같은 것들로 서사 방식보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로 작품의 후반부에 치중되어 있다. 우선 신학문 수용에 대한 강조는 일본인의 양아들이 된 경남수와 장석영의 대화에서 주로 나타나며, 교육에 대한 의지 역시 신지도와 공주의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이때 교화의 내용은 경전 교육보다는 실용 지식과 실업을 권장하는 것이며, 여성 교육의 경우는 <내훈> 류의 교육이 아니라 제도 교육에 의한 신학문을 교육하는 것으로 기연의 약혼자를 부모와 시부모 몰래 일본 유학시키고¹⁸⁾ 있다. 당시 조선의 정치와 관련하여 개혁이나 부국강병책을 고민하는 내용 역시 종종 등장하는데 이는 주로 석영과 기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요소들이 전통적인 서사 방식에 많이 기대고 있는 이 작품에 당시의 시대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 주기는 하나, 소설의 서사로 살아나는 것은 오히려 치정담¹⁹⁾이라 하겠다. 위 내용들이 설명적으로 제시되는 반면 치정담은 구체적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물론 치정담은 전반부에서도 등장한다. 석영을 사모하던 옥순과 안총각, 김씨녀와 한정득의 이야기는 전반부에 해당하고, 기연을 사모하던 중국 고위 관리의 첩 동금선과 장문겸 사이, 노씨 부인과 그 집 머슴 이달성 및 유흥기 사이, 그리고 신태경을 겁탈하고자 치밀하게 계획하는 정학모의 이야기는 후반부에 등장한다.

대개의 신소설이 그러하듯 <기우도> 역시 전통적인 서사 방식과 근대적인 요소들을 결합시키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그 분량에 비해 소설로서의 효과가 약한 반면 치정담이나 고전소설의 서사 관습에서 비롯한 요소들은 이야기로서의 미덕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기우도>가 미완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작품의 소설로서의 재미는 전통 서사 방식에서 힘입고 있다고 하겠다.

18) 1896년에 발행된 일본 잡지 『태양』 5호에 의하면 당시 조선에서 지원하는 일본 유학생 120명 중 여성이 4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김윤식,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로서의 신소설」, 『한국학보』 31집(1983), 63쪽

19) 치정이라는 단어는 본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의 치정담에는 남녀 사이의 긍정적인 만남이나 연애담은 제외시켰다.

2. 중심인물들의 소극성

이 작품이 고전소설과 가장 극명하게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물 형상화일 것이다. 이 작품에는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영웅은 없다. 세상을 오예하던 주인공 장천민은 억울하게 죽고 그 아들 장석영은 양반의 후예이나 유배지 신지도에서 죄인의 아들로 미천하게 자라나서 자력으로는 그 섬에서 벗어나질 못 하고, 그 아들 기연 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친의 억울함을 신원하고 서울로 돌아가게 된다. 물론 기연은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지만 문장 재주 외에 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것은 오로지 실세가 누구인지 정보를 알아내고 인맥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이다. 사건 해결은 기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인맥의 시혜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니, 고전소설의 영웅성과 비교해 본다면 기연 역시 매우 왜소한 현실적인 인물형이다. 그런데 창작 시기가 후대인 만큼 영웅성의 제거는 서사가 사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중요 등장인물들의 소극성이다.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은—구시대 지식인이든 신시대 지식인이든 간에—현실에 대한 그들의 응전력이 세계의 전망을 열어가는 데까지 이르지 못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구시대 지식인인 장천민은 죽음으로써 세상에 완전히 패배당하고, 역시 한학의 전통 하에 있는 장석영 역시 신문물이나 개화를 강조하기는 하나 성실하게 치산하여 재산을 모으고 아들을 중국 유학 시킨 것을 제외한다면 뚜렷한 사건을 만들지 못한 채, 전생담으로 귀의하고 만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 유학을 한 기연이나 태경이 신시대 지식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 역시 유학하는 동안 남녀 문제에 얽혀 들어가는 과정이나 확대되었을 뿐 그것을 제외한다면 별다른 사건이 없는 상태로 그려지는 것이다. 즉 그들은 구시대 지식인이든 신시대 지식인이든 현실 대응력 측면에서 무능력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 작품이 그렇게 신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문이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전화되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²⁰⁾ 이는 작가가 신교육을 당위로 제시할 뿐 실제 정황

20) 물론 구학문과 신학문을 비교하자면 구학문에 비해 신학문이 훨씬 필요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기우도> 26회에 보면 7살 된 장기연이 할아버지인 김취당과 문답을 하는데 김취당의 학문이 기연의 질문 앞에서 무색해지는 광경을 묘사한다. 이렇게 들어서 백과전서적인 지식을 묻고 답하

속에서 신교육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리라는 전망을 확보하지 못 해서 일 가능성이 있다. 즉 신교육의 기능적인 수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이 드러나지만 그 지식 체계가 세계에 대한 응전을 가능하게 해 줄 이념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선악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²¹⁾ 분명하게 제시되는 악은 탐관오리와 동학교도들이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몇몇 세도가에 의해 문란해진 정치 및 탐관오리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에서 서 있고, 동학을 사칭하는 무리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나 동학교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부정적인 인물들임에 분명하다. 이제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세상에 개혁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암시를 하면서도 그 정치적 입장이 어떠한지 되는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결코 반외세적인 성격을 띠지도 않는다. 중국이나 일본도 새로운 문물을 교육받기 위한 중립적인 공간일 뿐이다. 보수 세력들이 조정을 차지하여 개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원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객관적인 서술 태도를 취한다. 몇몇 세도가에 의한 전권을 비판하면서도 유부인(장천민의 아내)이 춘매를 봐주고 싶을 때는 세도가에게 부탁하여 강도살인 죄인에 해당하는 그 아들을 빼내 주는 일화가 들어 있기도 하고, 비록 억울한 죄목이기는 하였으나 개인의 원한을 푸는 방법 역시 인맥을 동원하여 그 인맥의 힘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긍정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인물들의 열망은 분명하게 감지되나 그 방법이나 가치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구시대 지식인은 물론 신시대 지식인들도—진지하게 모색하긴 하지만 소극적인 대응 양상을 보이며, 그들의 구국 열망과 그들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는 장면은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성리학적 질서 하에서 동양의 전통 교양에 입각한 백과전서적인 지식을 논하는 이런 의는 장면은 결국 당시의 작가들이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며 그 지식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여겼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기우도>에 이르면 더 이상 구학문이 세상사의 질문에 답해 줄 수 없음이 폭로된다.

21) 신소설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도 신소설의 경우 텍스트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산’의 개념이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성 연구』(역락 2005), 198 쪽

V. <기우도>에 나타난 유배서사의 특징

<기우도>의 후반부는 격동하는 시대에 지식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과 고민이 드러나 있고, 몽유록과도 같이 몽유(夢遊)한 내용들이 우의적인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장면은 표현과 내용의 긴장감을 확보하고 있으며, 낙질인 까닭에 장기연이 중국으로 가는 배에 오르는 데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기에 그 이상의 서사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후반부가 원고지 1,000 매를 넘기는 분량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후반부는 장석영의 전생담 및 장기연과 신태경의 남녀문제 서술에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서사 전개의 탄력성을 잃은 감이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 장석영의 전생담이 장황하게 삽입된다든지 유학 생활에 대한 서술이 연애로 점철되는 현상은 신문명을 지향하는 등장인물들의 발화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 하는 까닭으로 작품의 서사가 곁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이 작품의 마지막이 보여주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진정성에 대해 어느 정도 회의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이 작품의 서사가 실감나게 새롭게 읽히는 부분은 오히려 작품의 전반부이다. 작품 후반부에서 주장하는 신교육, 신문명 개화의 중요성 등은 다른 신소설에서도 주장하는 내용들로서 <기우도>만의 개성적인 면모가 적다. 반면, 아직도 구학문의 질서 아래 있는 신지도에서의 유배서사를 다룬 전반부는 유배를 소재로 한 다른 작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서사 전개라는 점에서 <기우도>만이 지니는 새로운 유배 서사라고 하겠다.

고전소설에서도 유배 사건은 자주 등장한다. 부모를 잃거나 전쟁을 만나거나 혹은 유배를 당하는 것은 고전소설 주인공이 그 실세를 만회하는 성공담을 보여주기 위해 결핍 상황을 만들어 주는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고전소설의 경우 유배 이야기는 많아도 정작 유배지에서의 생활상은 잘 드러나지 않으며 그곳에서 눌러 사는 주인공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유배지는 늘 떠나야 하는 공간이기에 한시적이며, 또 제시적인 서술 방식으로만 등장하는 공간이었다. 고전문학에서 소설보다 유배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문학 장르는 시가 장르이다. 시가 문학에서는 아예 ‘유배가사’나 ‘유배시조’ 등으로 하위 분류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유배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 그곳에서 그려지는 유배 생활은 실제 삶의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 주지하듯 강호가도류의 자연은 사대부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도(道)의 구현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전소설에서나 고전시가에서나 유배에 대한 기술은 관념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기우도>의 유배 서사는 실제로 조선 시대 유배지에서의 생활상을 그려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인공들의 몰락함, 궁색함, 비참함 등이 여과 없이 재현된다. 고전소설이라면 가문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인 장천민이 유배지로 떠나기도 전에 옥사하고, 그 가족들만 유배지로 떠나게 되는 것부터 고전소설의 서사 관습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장천민의 부인은 양반이지만 심각하게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며, 살기 위해서는 중인인 최치삼의 눈치도 봐야 하고 심지어 죽음을 결심하기 전까지 그로 인해 성적인 수치감도 경험해야 한다. 신지도의 유학자로 그려지는 김취당의 경우는 조상이 그 섬으로 유배 왔다가 눌러 앉은 경우이다. 섬에서 유학자로서 학문을 일삼으며 사는 그의 모습은 실제로 유배지에서 저술 활동을 했던 유학자들의 일상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정약용의 경우도 유배지에서의 저술 활동이 중요하게 거론되나 초점은 저술 그 자체에 맞춰져 있을 뿐 유배지에서의 구체적인 일상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²²⁾ 이에 비해 의식주, 서당 교육, 자식들의 혼인에 대한 태도 등을 사건을 통해 장면화하고 있는 <기우도>의 인물 묘사는 섬에서 유학자로 살았던 이들의 일상을 보여준다.

<기우도> 유배 서사의 필진성은 정황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물론이고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법에도 힘입고 있다. 그것이 정절 모해이든 혹은 치정에 얽힌 송사가 되었든 간에 사건담마다 등장인물들²³⁾의 악한 의도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해결되는가가 궁금해지도록 만드는데 이는 그 서사가 추리소설의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사건 초미에 그 등장인물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제시

22) 임형택이 소개한 <남당사(南塘詞)>라는 작품을 보면 ‘홍임이 모’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여성은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첩으로 데리고 살았던 여성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산은 해배가 되었을 때 이 딸을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여인 역시 버림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황은 유배지에서의 다산의 일상생활을 잠직하게 하는 자료이다. 그런데 다산 연구의 초점은 주로 다산의 학문에만 맞춰져 있으며 유배지에서 그의 일상생활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임형택 「신발굴 자료 <남당사(南塘詞)>에 대하여」, 『민족문화사 연구』 20(민족문화사학회 2002) 참고

23) 이런 인물들은 대개 일회적인 등장에 악역을 감당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해 놓고 나서 그가 그 과정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며 선한 인물들은 그 곤경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여준다. 독자들에게 사건 해결의 호기심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건은 장천민이 당한 사기 사건을 안성군수가 해결하는 대목에서이다. 장천민의 종 만쇠가 마신 술은 도대체 무엇인지 장천민이 받은 가짜 영수증은 또 어떻게 증명할지 등의 궁금함이 오징어 떡,²⁴⁾ 치뇌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로 해결되는 과정 자체가 독자들의 호기심, 추리하는 재미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주로 등장인물 간의 대사로 채워지는데, 신소설의 대화가 ‘정보 전달과 은폐’라는 범죄 추리 소설의 특징적인 면모를 지녔을²⁵⁾ 뿐 아니라 대사 한 마디 한 마디로 정황을 재현하는 방식은 사건의 정황을 짚진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이 작품 후반부의 여러 사건들이 한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은 채 계속 여러 방향으로 확산해 가는 데 비해 전반부의 유배 서사는 확실한 서사의 추동성과 일관성을 보여준다. 유배지에서의 서사는 등장인물들의 의지와 행동의 방향이 일치하며 주된 추동 방향을 만들어 나간다. 이는 곧 작품 전반부의 사건들이 몰락한 장천민 일가의 회복과 흩어진 가족들의 재회를 향한 데서 비롯하는 것이며, 영웅 일대기 구조를 차용하고 있는 데서 비롯하는 힘이기도 하다. 구한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기우도>의 유배 서사는 김취당과 장석영의 삶을 통해 고전문학에서는 보기 드물게 도서(島嶼) 지방으로 유배 간 양반들의 일상생활을 그리고 있을 뿐 아니라 서사로서의 흥미를 확보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VI. <기우도>의 소설사적 의미

앞에서도 언급했듯 <기우도>는 유배서사가 특징적인 작품이다. 그런데 박헌용의 고향인 강화도 역시 유배지였고, 강화도에서 학문의 계통을 이어 갔던 강화학파의 인물 중에도 섬으로 유배를 간 사람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영조 31년(1755) 나주벽서사건으로 인해 이광명의 형제 및 자손들은 변방이나 섬으로 귀양 가 그곳

24) 오징어 떡으로 쓴 글씨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기우도>의 설정은 이병허각이 쓴 『규합총서』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정양원(역), 『규합총서』(진보재, 2003), 60쪽.

25) 김석봉, 앞의 책, 106쪽.

에서 생을 마감하고 가솔들은 유리걸식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했으며,²⁶⁾ 역시 하곡의 학문에 심취하여 강화도에 거주했던 원교 이광사 역시 전라도 신지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²⁷⁾ 강화도와 밀접한 인사들의 이런 유배의 예들은 <기우도>의 유배 서사와 그 양상이 매우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기우도>에는 장석영이 신지도에서 산을 사서 과수와 약초를 재배하여 재산을 모으는 과정이 그려져 있고, 흥학계(興學契)와 권업계(勸業契)를 조직하여 섬을 교화시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박영효의 예를 보면 유배지에서 이 같은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영효는 제주도로 유배 갔을 때 그는 소득이 낮은 재래 농업 양식에 변혁을 일으켜 보고자 2만 4천여 평의 넓은 땅을 구입해서 과수를 재배하고 원예를 가꾸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꾸준히 계몽활동을 했다고 한다.²⁸⁾

그런데 계명의숙의 교장이 이건승이었고, 사기리는 이건승의 할아버지 이시원(李時遠 1709~1866)의 고향이며 박헌용이 계명의숙의 교사이자 이견방과도 교유한 것을 생각해 보면 박헌용 역시 강화학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강화학파의 영향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예로는 동학에 대한 서술자의 언급을 들 수 있는데, <기우도>에서 동학도들은 세상을 속이는 도적이거나 강도의 무리처럼 그려진다. 박헌용은 개화와 신교육을 지지하는 인물이었지만 민중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화학파 역시 동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견창(李建昌; 1858~1898)으로, 그는 동학도들을 가리켜 ‘비적(匪賊)’이라고 불렀다.²⁹⁾ 강화학파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개혁파였고 박헌용도 이 노선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기우도>의 서술자 역시 성리학적 질서를 인정하면서 개화를 추진하며 역사의 주체는 양반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작가의 이런 성향이 곧 부정적인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리학적 질서를 거부하면서 계몽을 주장했던 이광수나 최병도 같은 양민을 역사의 주체로 세웠던 이인직이 결과적으로는 더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벌였던 반면 박헌용은 항일운동으로 인한 수감 생활 후 저술 작업을 하면서 여생을 마무리

26) 윤종영, 앞의 논문, 267쪽

27) 위의 논문, 274쪽

28) 홍순만, 「조선말기 제주도의 유배인과 형사제도」, 『제주도연구』 3집(제주학회 1986), 67쪽

29) 심경호, 앞의 논문, 23쪽 구한말 지식인이었으며 강화학파와도 교류가 있었던 매천 황현 역시 그의 저서 『매천야록』에서 동학교도들을 가리켜 ‘도적[匪]’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화에 대한 박헌용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물론 <기우도>의 서술자는 개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런데 작품을 보면 당시 지식인들이 지녔던 근대에 대한 대응이나 개화에 대한 태도 등을 짐작케 하는 단서들이 포착된다. 우선 이 작품이 크게 두 부분의 서사로 나뉜다는 점이다. 전반부는 구한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고전소설의 서사를 변용한 정도의 이야기이다. 이에 비해 후반부는 근대 혹은 애국계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 또한 신소설에 가깝다.

한 작품이면서 전혀 다른 두 가지 서사가 맞물려 있는 것이다. 구한말의 전통적인 서사를 거쳐서야 비로소 근대 공간이 열리는 서사가 선적인 전개 방식에 의해 펼쳐진다. 두 가지 이야기는 전통적인 서사 관습의 공유로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하나 분리된 두 개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명개화를 지지해도 그것은 전통의 시간과 관습을 관통한 후에야 가능한 서사였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 나타나는 또 다른 분리 현상으로는 유학을 통해 얻는 지식과 유학생들의 삶의 괴리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 기연의 유학 생활은 주로 연애 서술에 할애되고 막상 중요 인사들과의 인맥 맺기 등은 한두 문장으로 처리될 뿐이다. 더 문제인 것은 신태경의 경우인데 그녀는 양가 부모를 다 속일 정도로 무리스럽게 유학을 선택하였다. 그런데도 태경의 일본 유학 생활은 정학모에 의해 모해당하는 과정을 그리는 데 치중하며 태경이 유명해지는 것은 그녀의 전문 지식 때문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칼에 세 군대를 찢리면서까지도 정절을 지켰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술자는 그렇게 신교육, 여성 교육, 유학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막상 그들의 유학은 지식의 힘과 연결되지 못한 채 소모된다. 이것은 작가가 지닌 사고의 관념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둘로 양분되는 서사와 유학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는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개화에 대한 이해와 당시 조선의 개화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즉 조선이 근대 공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아노미가 작품 속에서는 분리와 괴리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요소는 어쩌면 작가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작가가 성리학적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 내면화하는 과정, 일본에 의해 주어지는 신문명을 긍정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아직 방향을 못 잡은 채 모색해야

하는 혼돈의 상황이 전통의 시간을 한 번 관통해서 근대로 이행하는 서사로 나타난 것이며 모색 단계에 있는 것을 억지로 종료시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통 서사의 관습들을 계승하면서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 작품은 지식인 작가에 의해 창작된 19세기 한문장편 소설의 근대 이행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난학몽>의 작가 정태운(鄭泰運; 1849~1909)과 박헌용(1881~1940)의 생몰연대를 보면 둘 사이의 시차는 겨우 30년 정도에 불과하다. 애국계몽기에 새롭게 창작되는 신작 구소설이나 신소설들도 많고 또 새롭게 발굴되는 작품들도 있으나 그 소설 중 19세기에 현상적으로 등장했던 지식인 작가들의 맥을 잇고 있는 작품이 무엇인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만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본고에서 처음 발굴, 보고하는 <기우도>는 19세기 지식인 작가들이 창작했던 장편소설의 맥이 근대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전통 서사와 근대 공간이 조우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기우도>, 하정 이강로 소장본.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http://nhcc.go.kr>) 1909년 4월 20일자 『대한홍학보』 2호 7면, 박헌용, 「사회진보제어종교지확립」.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성 연구』. 서울: 역락, 2005.

김윤식, 「<정치소설>의 결여형태로서의 신소설」. 『한국학보』 31집, 1983. 56~81쪽.

박헌용, 『속주증보 강도지』. 강화: 미상, 1932.

손순옥, 「동정 박세림의 서예술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신용하, 「계명의숙 취지서·창가·경축가·창립기념가·권학가 등」. 『한국학보』 서울 일지사 1977, 291~299쪽.

심경호, 「19세기 말 20세기 초 강화학파의 지적 고뇌와 문학」. 『어문논집』 41호, 민족어문학회 2000, 5~43쪽.

윤종영, 「문명견문기; 강화학파의 발자취를 찾아서·상」. 『문명연지』 5권 1호, 2004, 253~301쪽.

이은숙, 『신작 구소설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0.

임형택, 「신발갈 자료 <남당사(南塘詞)>에 대하여」, 『민족문화사 연구』 20, 민족문화사학회 2002, 431~448쪽.

장효현, 「19세기 한문 장편소설의 창작 기반과 작가의식」,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 출판부 2002, 362~380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인물대사전』 2. 서울: 중앙일보사, 1999.

정양완(역), 『규합총서』, 서울 진보재 2003.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 한국문화연구소 1973.

한국조폐공사(편), 『한국화폐전사』, 1971.

홍순만, 「조선말기 제주도의 유배인과 형사제도」, 『제주도연구』 3집 제주학회 1986, 61~68쪽

● 투고일 : 2005. 10. 10.

● 심사완료일 : 2005. 11. 30.

● 주제어(keyword) : 기우도(Ki-Woo-Do, 奇遇圖), 박헌용(Park, Heon Yong, 朴憲用), 유배(exile), 개화(enlightenment), 교육(education), 강화학파(the school of Kanghwa), 신소설(the new novel), 전통 서사(traditional narrative)